

자·전·거·열·풍

전용도로 확충·자치단체 각종 인센티브
광주·전남 보유대수 35만대 이용자 급증

자전거 열풍이 뜨겁다.
영산강 등 4대 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끝나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활발히 나서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교육 미흡과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부재로 자전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한다.

<관련기사 3면>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자전거 보유대수는 35만대에 이르며, 자전거 통행회로도 1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65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73% 가 자전거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

됐다. 매달 한 차례 이상 자전거를 타는 국민은 절반을 넘었으며 ('거의 매일' 8.7%, '주 1~2차례' 23.6%, '월 1~2차례' 22.2%), 레저와 건강유지가 주목적으로 꼽혔다.

이는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자전거 도로와 관련 인프라를 늘리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 덕분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내 자전거 도로(전용도로 포함)는 총 1532.92km에 달하고 있고, 담양~순창을 잇는 22.5km의 섬진강 자전거 길과 국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53.4km 등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백화점·상업시설·문화시설 가격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탑승 전용칸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유도하

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국토 종주도 인기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지난 3월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제 실시 이후 4개월여간 종주 인증자는 2만3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양댐~영산강 하구둑(133km)에 이르는 영산강 자전거 길은 종주한 인증자는 2017명에 이른다.

자전거 및 관련 유품 매출도 늘고 있다. '정(情) MTB' 대표 김성영(37)씨는 "과거에는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산악 자전거(MTB)가 많이 팔렸지만, 지금은 생활형 자전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영산강 자전거 길이 개통되고, 광주천을 비롯한 천연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자전거가 주요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차 발사 앞둔 나로호 조립

나로호 3차 발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한국과 러시아 연구원들이 나로호 상단과 추진체(로켓)를 조립하고 있다. 오는 26~31일 사이 발사되는 나로호는 발사 예정일 이틀 전 발사대에 장착된다.

/고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선 앞 국감... 후보 검증공방 5일부터 20일간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불과 2개 월여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상대 후보들에 대한 정밀감증이 실시되는 등 대선전을 방불케 하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양면 공격'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데에 활력을 집중할 태세다.

우선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 '노무현 정권 실정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상임위별로 노 정권의 과(過)를 부각함으로써 문 후보의 '대통령 자격 미달론'을 끌어내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장외 주자'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는 산업은행의 안철수연구소(안랩) 투자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의혹을, 지식경제위는 재벌회장 구명 탄원서를 비롯한 브이소사이어티 활동을 각각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제기된 도덕적 의혹을 검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수장학회 문제, 을케인 사항회 변호사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의혹, 새누리당 '공천장사' 의혹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정수장학회와 영남대를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장불'로 규정하고 사회

환경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선 때문에 여론의 조명을 덜 받긴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활약상도 기대된다. 우선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 문방위원인 장병완 의원, 교과위원인 이용섭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또 박혜자·임애현·황주홍·김승남·오병운 의원 등 초선 의원들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

■ 광주·전남 추석민심 들어보니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오랜만에 가족, 친지와 함께 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평화로운 민생 등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에서 추석을 쇠기 위해 귀향한 최모(45)씨는 "가족과 친지들이 오랫만에 차례상에 모였지만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대선도 대선이지만 경제 문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큰 화두였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아권의 후보 단일화 등을 중심으로 연말 대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고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정권 청출이 가능한 구도가 짜여지면서 지역 민심은 그동안의 관망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민주당의 문 후보와 무소속의 안 후보의 지지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후보 단일화가 대선 후보 등록(11월 25일 ~ 26일) 이전 성사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늦어도 11월 초반에는 광주·전남 지역 민심의 흐름이 가닥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오는 12월 대선에 관심을 갖

고 있었고 아권 단일후보에 대한 요구도 커다"고 지적한 뒤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의 어려운 삶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원장도 "이번처럼

각박하고 냉기 있는 추석은 없었으

며 이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실질소득 감소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대선

과 관련 호남인들은 문재인과 안철수

를 놓고 고민 중이었으며 단일화 바

람이 강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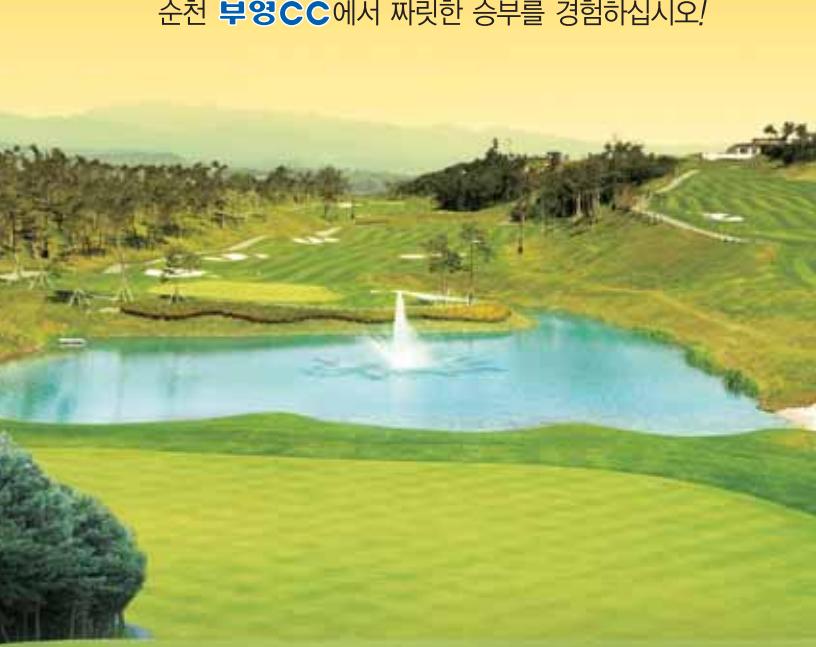
062)226-0001

Mercedes-Benz

퍼블릭 골프장의 자존심, 세상을 향해 넓은 가슴이 열린다!

순천 부영CC 탄생!

전문 골퍼들이 인정하는 최상급의 18홀 코스!
순천만과 다도해가 인접한 고품격 컨트리클럽—
순천 부영CC에서 짜릿한 승부를 경험하십시오!



2012년 10월 3일

상기 이미지는 우정코스 1번홀을 실제 활용한 사진입니다.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058번지. 시행 및 시공: (주)부영주택

상쾌한 라운딩의 시작! 순천 부영CC

18홀의 도전과 모험, 짜릿한 승부를 경험하십시오!

사藩팔달의 막힘없는 쾌속 교통망

동순천IC 2분, 성산역 3분, 여수항 20분 거리의 막힘이 없는 교통망을 제공합니다.

전문 골퍼가 인정한 다이나믹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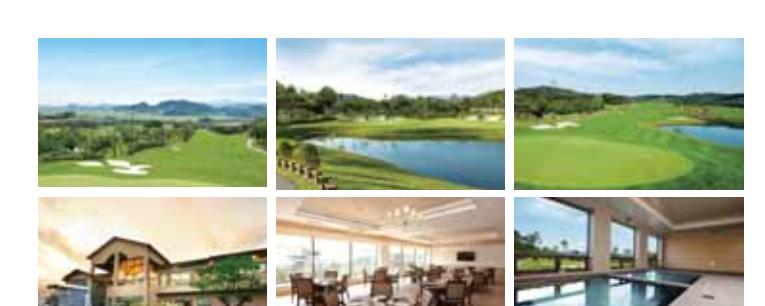
자연과 조화를 이룬 골프 메이니지를 위한 18홀 최상급 코스는 색다른 골프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고품격의 클럽하우스 내 편의시설

클럽하우스내에 위치한 대식당, 사우나, 연회장, 프로샵 등이 리운딩 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역사와 자연이 조화이룬 관광명소

송광사, 낙안읍성 등 역사의 숨결과 순천만, 디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조화이루어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 대표전화: 061) 816-5500 • 예약전화: 061) 816-5533~4

www.scbooyoungcc.co.kr